

## 간접화법에 있어서의 접속법의 사용

김태성(부산대)

### 1. 들어가는 말

현대 독일어의 발전 경향에 대한 논저<sup>1)</sup>에는 접속법의 사용에 대한 문제는 빠지지 않고 다루어지고 있으며, 서법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독일어에 있어서 접속법에 대한 연구는 7, 80년대부터 근자에 이르기까지 간간히 나왔으나, 이에 대한 폭넓고도 깊은 연구는 아직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하겠다.

접속법에 관한 여러 가지 물음 가운데에서 필자는 우선 간접화법에서의 접속법의 사용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접속법은 직설법에 대해 어떠한 통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접속법의 형태는 어떠하며, 그것은 동사의 활용체계에 있어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간접화법은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며, 간접화법의 다른 형태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 보고, 그밖에 접속법의 대응형태로서 흔히 쓰이는 “würde”의 형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간접화법의 용례는 어디에서보다 신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언론보도에 서 말을 옮기는 것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신문기사에는 직접인용보다는 간접인용의 경우가 훨씬 많으며, 직설법만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보다는 직설법의 문장과 간접화법의 접속법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텍스트가 압도적으로 많다<sup>2)</sup>. 필자가 조사한 140개의 문건 가운데

1) P. Braun(1987: 143ff.), H.-S. Glück/W. W. Sauer(1997: 63ff.), K.-E. Sommerfeldt, (1988: 213ff.) 참조.

2) 예거(S. Jäger 1971: 20)에 따르면, 신문의 정치 면 기사에서의 정동사 형태에 대한 접속법 형태의 대비는 “벨트” Welt 지에 있어서는 17,1%에 이르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FAZ 지에는 35,6%에 이르고 있다.

무작위적인 표본의 예로 필자가 조사한 2002년 9월 19일자 『더 벨트』 Die Welt지

데 13개의 문건만이 직설법의 문장으로 되어 있었다. 직설법의 문장만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에서도 어휘적 수단을 이용한 간접화법의 문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언어자료는 2002년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의 인터넷을 통한 독일의 일간지 “디 벨트” Die Welt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의 ‘정치’ 면과 ‘과학’ 면에서 고른 기사이다.

정보와 의견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사 작성의 기본원칙이며, “논평은 자유이지만, 사실은 신성하다” (Melenk 1985: 51)는 말이 있거니와, 객관성의 규범은 저널리즘의 전통에 속한다. 이처럼 기사문에 있어서는 보고되는 의견은 보고되는 의견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옮겨지는 말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면, 직설법<sup>3)</sup>이 사용되지만, 옮겨지는 말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접속법의 형태가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에서 “접속법 I식을 비사실성에 결부시키는 것이 간접화법이다” (Eisenberg 1999: 118)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문어체에 있어서의 간접화법상의 서법의 사용에 대한, 이미 오래 전의 방대한 통계적인 연구 결과<sup>4)</sup>를 보면, 간접화법에서의 직설법과 접속법 II식의 비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 접속법 I식이 약 49%(분명하지 않은 형태를 포함하여), 접속법 II식이 36%, 그리고 직설법이 약 15%에 이른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서는 접속법 I식은 간접화법에서의 통상적인 서법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Buscha/Zoch 1984: 13 참조).

하지만, 문어체로서의 신문기사 텍스트에서의 간접화법에서는 원칙적으로

---

정치면의 “Rumsfeld: Militäraktion gegen Irak erfordert Bodentruppen”이라는 제목의 비교적 짧은 텍스트 안에 들어 있는 20개의 정동사 가운데, 접속법 형태가 15개나 되며, 직설법 형태는 5개에 불과하다. 그것도 직접·간접인용으로 쓰인 직설법 형태의 동사 “sagen”이 3개, 간접적인 화법으로서의 출처를 밝히는 “laut”과 함께 쓰인 직설법의 동사가 1개(“erfordert”), 독립적으로 쓰인 직설법의 동사는 1개(“warb”)뿐이다.

3) 예: Sieben Kinder und eine Frau wurden tot aus den Trümmern geborgen, berichtet das staatliche Fernsehen. (Welt 01.11.2002)

4) S. Jäger 1971: 23ff. 참조.

접속법 I식이 사용된다는 규정이 거의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음을 필자는 관찰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언론 보도에 나오는 접속법의 형태는 문법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신문 보도의 텍스트에 있어서는 접속법 I식과 접속법 II식은 의미상으로나 기능상으로 아무런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접속법의 사용에 대해서 학교문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 보고자 한다.

『두덴 DUDEN 문법』의 제3판(1973: 109f.)에 보면, 간접화법은 그 형태가 분명한 한에는, 접속법 I식으로 씌어 있어야 하며, 접속법 I식의 형태가 불분명하여 간접화법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접속법 II식으로 씌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규칙을 말하고 있다 (1973, §248, 249).

접속사로 인도되는 종속문이 직설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간접화법임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접속법 I식을 써야 하며, 말하는 이가 전달되는 진술 내용을 의심스럽다고 간주할 때에는 접속법 II식이 사용될 수 있다는 부가적인 규정을 덧붙이고 있다 (1973: 110). 따라서 간접화법에도 직설화법의 접속법 II식의 형태가 (예컨대 비현실적인 조건문) 나오게 된다.

제4판(1984)에서는 “화자나 필자가 간접화법에서 접속법을 쓰기로 결정하면, 보통 접속법 I식을 선택한다. [...] 그러나 드물지 않게 접속법 I식 대신에 접속법 II식이나 *würde* 형태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확고한 규칙은 말할 수 없다. 다만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날 뿐이다.” (§285)라고 말함으로써 두덴 문법서는 실제의 언어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제 5판(1995)과 제6판(1998)에서는 “간접화법은 접속법 그 자체를 통해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접속법은 간접화법에서 직설법 대신에 선택될 수 있는 것이지만, 선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간접화법의 보통의 서법은 접속법이다. 접속법이 언제나 선택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297)라고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표현들은 규범적인 *präskriptiv* 언어기술에서 기술적인 *deskriptiv* 방향으로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언어는 그 체계적인 성격이 강

조된다고 하더라도, 언어사용자와는 무관하게 기술될 수 있는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며, ‘문법’이라고 하면 곧 구조와 규칙의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언어의 사용’이라고 하면 이는 곧 복잡하고 무규칙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념은 양립되기 어려운 것은 아니며, 언어사용의 습관을 기술하는 것이 문법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Weigand 1992 참조).

두텐 문법서의 이러한 견해의 전환은 헬비히 Helbig와 부샤 Buscha의 『독문법』 Deutsche Grammatik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문법서의 제1판에는 “직설법으로는 특정한 경우에 ‘확인하는 것’이 표현되며, 접속법 현재와 현재완료로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접속법 과거와 과거완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표현된다”고 써어 있다 (G. Helbig / J. Buscha 1972: 165).

개정된 8판 이후의 이 문법서에는 위의 구절이 빠지고, 그 대신에 이렇게 되어 있다: “특정한 형태로써 특별한 화자의 의도 (예컨대 말의 내용에 대한 보다 더한 거리감)가 표현된다고 증명될 수는 없다.” (Helbig/Buscha 1988: 196)

그러므로 위의 문법서에서는 8판 이후로 간접화법에 있어서의 접속법의 이중적인 기능에 대한 견해로부터 접속법은 단지 간접화법임을 표시한다는 견해로 전환되어 있다. 이로써 헬비히와 부샤는 접속법의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규범을 제시하지 않던 당시 동독의 문법적인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두 문법서는 7, 80년대와 90년대에 나온 문법서와 많은 논저들의 견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 접속법으로 화자의 견해가 표현된다는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슈토이베 Steube는 접속법 I식으로는 아무런 견해도 중개되지 않으며, 발화는 단지 다른 사람의 말임을 표시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Steube 1983: 135ff.).

접속법은 동사의 굴절범주이며, 변화표에서 직설법에 대립되는 범주로 나타나지만, 접속법 I식이니 접속법 II식이니 하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의미

와 기능에 따라 따로 취급되고 있다. “접속법 현재” 또는 “접속법 과거”와 같은 표현은 직설법에서와 같은 시제의 개념이 아니므로, 필자는 아래에 접속법 I식 또는 접속법 II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sup>5)</sup>.

## 2. 접속법과 간접화법

### 2.1. 직설법과 접속법

직설법은 표준적인 서법이다. 직설법은 대개는 언어 표현의 일반적인, 흔히 있는 형태이며, 서법에 있어서 무표의 범주 또는 형태이다. 왜냐하면 직설법은 명제에 나타난 사태의 사실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접속법은 직설법에 대하여 유표의 범주이며, 접속법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과의 관련을 표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직설법은 보통 규범적으로 사용된, 중립적인 서법으로서의 실재를 나타내는 반면에, 접속법은 이에 반하여 발화의 일반적인 타당도를 제한한다. 여기에 접속법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자가 직설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가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반면에, 접속법으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 (Eisenberg 1999: 118).

(1) Er teilte mir mit, dass er *kommt* / *komme*.

(2) [...] er konnte als erster feststellen, dass das Universum eine Hintergrundstrahlung aus Röntgenlicht *hat*. (FAZ 08.10.2002)

론쉬타인 Lohnstein은 직설법의 문장은 “의미있는 주장(가능성)”을 요구하며, 이에 반해 접속법 문장은 의미있는 주장이 결여되어 있는 데에 직설법의

5) 접속법 I식은 동사의 (현재형 내지는) 원형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모든 접속법의 형태(접속법 현재, 현재완료, 미래, 미래완료)를 말하며, 접속법 II식은 동사의 과거형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모든 접속법의 형태(접속법 과거, 과거완료, 미래, 미래완료)를 말한다.

문장과 접속법 문장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Lohnstein 2000: 94). 접속법의 기본적인 기능은 직설법 문장의 어떠한 의미있는 주장의 조건이 성취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론쉬타인(Lohnstein 2000: 91)은 직설법과 접속법 II식, 이 두 서법은 명제의 평가를 인식에 관련된 배경에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이 두 서법으로 표시된 명제는 진리값을 가질 수 있으며, 의문문을 만들 수 있으나, 명령법과 접속법 I식은 그렇지 못하다 (Lohnstein 2000: 92). 접속법 II식의 문장은 실지의 사정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조건 아래에서 참이라는 사실로써 직설법의 문장과 구별된다 (Lohnstein 2000: 95). 분명히 접속법 II식의 문장은 그 참이 평가될 수 있거나, 질문이 답변될 수 있기 위하여 실지로 성취되지 못한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접속법 문장은 실제로 없는 여건에 대해 언제나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데에 직설법의 문장과 차이가 있다<sup>6)</sup>.

## 2.2. 간접화법

간접화법이라고 함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행해진 또는 예견되는 발화를 옮겨 말하는 것을 말한다. 말을 옮기는 이와 관련된, 축어적이 아닌 인용의 주형식으로서의 간접화법은 직접화법의 (원래) 화자와 관련된, 축어적인 직접적인 인용과 기능적인, 형태적인 관점에서 구분된다 (Buscha 1987: 68 참조).

직접화법에 대하여 간접화법의 특수한 기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직접화법과는 달리 원래의 말을 얼마큼 줄일 수 있으며, 둘째는 간접화법으로 보고자 또는 원래 화자의 관점이 분명히 표시된다. 셋째로 화자 텍스트를 보고자 텍스트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Buscha 1987: 68 참조).

6) 론쉬타인에 따르면, 접속법 II식의 사용을 통해 야기되는 것은 명제의 내용이 현실적인 지표(Index)로부터 다른, 매우 유사한 지표로 화법상 옮겨진다는 것이다. 접속법 II식에 있어서서는 평가지표의 추이가 일어난다. 그것을 그는 “화법상의 추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추이는 직설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화법상의 추이는 적어도 성취되지 않은 하나의 조건이 있을 때, 말하자면 조건의 집합이 비어 있지 않을 때에만 일어난다. 이로써 화법상의 추이는 접속법 II식의 사용에 대한 조건이 된다 (Lohnstein 2000: 95, 98 참조).

형태적인 견지에서는 간접화법은 무엇보다도 대명사가 바뀌므로써 직접화법과 구분된다. 대명사가 바뀌는 점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말을 옮기는 상이한 형태들 가운데 공통성이 있다. 간접화법과 다른 부차적인 형태들 사이에는 한편으로는 주문장으로 되어 있는 전달문과 부문장 형태의 피전달문 사이의 통사론상의 종속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서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간접화법에서만 직설법 대신에 접속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3) Er sagt: „Ich habe dich mehrmals angerufen.“  
 → Er sagt, dass er mich mehrmals angerufen *habe (hätte) / hat* .  
 → \*Wie er sagt, *habe (hätte)* er mich mehrmals angerufen.  
 → Wie er sagt, *hat* er mich mehrmals angerufen. (Buscha 1987: 68f.)

말을 옮기는 데 있어서의 접속법은 간접화법에만 나온다는 단정은 접속법은 여기에서 어떠한 특별한 기능을 갖느냐 하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한 가지의 견해는 간접화법에서의 접속법은 단지 간접적으로 말을 옮긴다는 것을 표시할뿐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의 견해는 접속법은 바로 간접화법임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서법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화자의 견해가 표현된다는 것이다.

접속법이 간접화법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는, 접속법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접속법 I식이 간접화법임을 알리는 유일한 표시이고, 전달되는 내용이 보충어문장의 형태로써가 아니라, 독립된 주문장의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접속법 I식의 사용은 특히 문어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른바 ‘보고화법’ berichtete Rede의 형태에 있어서는 접속법이 전적으로 사용된다. 문맥상으로 간접화법임이 분명히 드러나더라도 여기에서는 말을 옮긴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기 위해서는 접속법을 반드시 써야 한다. 개별 문장에 있어서 서법만이 간접적으로 말을 옮기는 데 대한 유일한 표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서 — 특히 언론보도에 있어서 — 옮겨지는 다른 사람의 말은 기자의 진술과 구분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접속법을 두고서 독자는 동시에 문맥을 보고서 원래의 보충어문장인 독립된 문장에 주문장을 보충해 볼 수 있다.

접속법 I식은 간접화법에 대한 확실한 표지이지만, 그에 대한 유일한 표지는 아니다. 피전달문을 이끌어 들이는 의사전달동사와 종속접속사가 있을 때, 곧 간접화법이라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접속법 I식은 사실상 중복되는 표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의 전달이 간접적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의 문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표시되기 때문이다 (예: 인칭, 장소, 시간의 부사). 직접화법에 대하여 간접화법의 단위는 통사론상으로 강하게 매여 있으며, 사람과 관련된 표현 수단은 고스란히 옮겨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접화법”이라는 표현 대신에 “간접적 맥락” 속에서의 접속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Zifonun/Hoffmann/Strecker 1997: 1753ff.).

서법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도 언급되고 있지만, 그 모두는 확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전달문을 이끌어 들이는 동사의 시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Helbig/Buscha 1972: 164).

그러한 동사의 인칭 (그 다음에 직설법이 오는 1인칭 현재를 제외하고서는) 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간접화법을 인도하는 동사 자체의 선택에 있어서도 경우는 같다.

특정한 서법을 요구하는, 곧 간접화법을 이끄는 동사의 출현 빈도를 목록으로 만들어 그룹으로 묶어본다고 하여도 요인들을 규정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의사전달동사 이외에 다른 동사(예컨대 미래에 관련되는)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전달동사는 보충어의 자리에 접속법 I식이 쓰이는 구문의 동사를 대표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간접화법의 문장구조와 관련하여 넓은 의미에서 그러한 부류의 동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sup>7)</sup>

7) 목적어문장에 접속법 I식(현재)이 올 수 있는 동사가 많이 있는가 하면, 다른 동사에 있어서는 접속법 I식(현재)이 배제되어 있으며 (Eisenberg 1999: 117), 접속법 I식은 “dass”-보충어 문장의 간접화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비사실성과 결부되어 있으며. 접속법 I식은 사실성을 나타내는 동사와는 쓰일 수 없으며, 비사실성을 나타내는 동사와는 의미의 차이 없이 직설법과 대체될 수 있다고 아이젠베르크는 말하고 있다 (Eisenberg 1999: 118 참조).

그와 같은 설명에 따르면, 예컨대 동사 wissen 다음의 목적어 문장에는 직설법이 나와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필자가 연구자료로 삼은 신문의 전체 기사문 가운데서 복합문의 구조의 보충어문장에서의 접속법을 이끄는 동사(주문장의)의 출현 빈도(횟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괄호 안의 숫자는 절대수)

sagen(65), (es) heißen(13), erklären(11), betonen(10), berichten(10), mitteilen(7), ankündigen(5), verlauten(5), versichern(4), (davon) ausgehen(4), glauben(3), einräumen(3), vorwerfen(3), warnen(3), vermuten(3), bekanntgeben(2), meinen(2), wissen(2) beklagen(2), mutmaßen(2),

그밖에 1회 나온 동사:

anführen, begründen, behaupten, bekräftigen, bestätigen, entgegenhalten, erwarten, erzählen, feststellen, fordern, fragen, geloben, hinweisen, hinzufügen, hinzukommen, hoffen, klagen, klarmachen, prophezeien, rechnen, scherzen, schlussfolgern, schreiben, spekulieren, übersehen, untersuchen, verkünden, wettern, zugeben, zurückweisen, (zu bedenken) geben, (im klaren) sein.

간접화법에 자주 나타나는 동사는 대체로 ‘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verba dicendi의 부류에 든다고 하겠으며,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동사 “sagen”이 간접적인 인용에서도 절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rklären”은 ‘공표하다’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됨을 볼 수 있다.

주문장에 나와 있는 동사의 의미에서 간접화법임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처럼, 접속법임을 확인하는 데에는 동사의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동사의 형태에 우선 주의를 돌리고자 한다.

---

예: Das irakische Militär wisse, dass ein „fürchterlich langer Kampf, sich nicht lohne.(Welt 19.09.2002)

### 3. 형태론적 고찰

#### 3.1. 굴절형태론적 범주로서의 접속법

어떠한 동사의 형태가 직설법인지, 접속법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지 하는 것은 그 정형의 구성 부분으로 안다.

접속법의 모든 형태는 2음절(또는 그 이상)이며, “e”를 가지고서 만들어져 있다. 접속법 I식(현재형)의 변화방식의 형태는 약변화 동사나 강변화 동사에 있어서 2인칭 단수·복수에서는 약음 Schwa을 삽입하는 것으로서 직설법과 구분되며, 3인칭 단수에 있어서는 약변화 동사에 있어서나 강변화 동사에 있어서 직설법의 “-t”는 접속법의 “-e”로 대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접속법 I식(현재)은 규칙적인 약변화 동사에서는 3인칭 단수에서만 어미 “-e”로써 직설법 “-(e)t”에 대해 뚜렷이 드러난다. 예컨대 “fahren”, “geben”, “stoßen”과 같은 강변화 동사에 있어서는 현재 2, 3인칭·단수에 있어서만 분명한 서법상의 대립을 본다.

1인칭과 3인칭에 있어서의 형태상의 일치는 이제 단수에도 적용된다. 독일어의 모든 동사에 있어서 3인칭 단수에서만 분명한 접속법 I식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3인칭 단수의 접속법 형태는 직설법 형태와 인칭어미만으로써 구별된다.

접속법 II식에 있어서의 어미목록은 접속법 I식에 있어서와 같다. 그러나 어간의 형태는 구별된다. 접속법 II식에 있어서의 인칭어미는 강변화 동사에 있어서나 약변화 동사에 있어서 직설법의 약변화 동사의 형태와 동일하다(Lohnstein 2000: 87f. 참조). 인칭어미는 통일적이며, 서법은 본질적으로 “e”로써 표시되어 있고, 시제는 모음교체로 표시되어 있다. 형태에 대한 표지의 개수는 접속법 I식은 1개(곧 “e”)이며, 접속법 II식은 2개(“e”와 모음교체)이다(Eisenberg 1999: 104).

강변화 동사에 있어서 직설법에 있어서는 간모음의 변화가 있으나, 접속법 I식에 있어서는 간모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간모음이 가능한 경우에는 언

제나 변하는 접속법 II식 형태의 굴절 양상과 현격한 대조를 보인다.

직설법 현재에서 모음교체가 있는 강변화 동사는 접속법 I식에서 부정형의 모음을 갖는다. 고유한 접속법 I식의 형태는 — 모든 인칭과 수에 있어서 — 흔히 조동사로 활용되는 “sein” 동사에 있어서만 볼 수 있다. 화법조동사와 동사 “wissen”도 부정형의 모음을 갖는다. 말하자면, 화법조동사(“sollen”을 제외하고)와 “wissen”에 있어서의 접속법 I식(현재) 단수는 간모음으로써 직설법에 대하여 유표이다. 이 여덟 개의 독일어의 동사는 1인칭 단수에서 분명한 접속법 I식의 형태를 갖는다: ich sei; ich dürfe, ich könne; ich möge; ich müsse; ich solle; ich wolle; ich wisse. 이들 동사의 형태는 특히 문어체의 독일어 표준어에 빈번하게 나온다<sup>8)</sup>.

강변화 동사에 있어서 형태상으로 유표인 접속법 II식(과거)은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sup>9)</sup>. 유표의 접속법 형태는 3인칭 단수의 접속법 I식을 제외하고서는 실제로 거의 조동사(와 동일한 본동사)에만 나온다. 다른 동사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복합적인 동사형태에 제한되어 있다. 말하자면, 다소간 독특한 형태로 활용되는 (조)동사 “sein”, “haben”, “werden”과 화법조동사<sup>10)</sup>의 접속법 I식과 접속법 II식의 형태가 간접화법에서 분명하면서도 빈도가 높은 동사의 형태로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Kaufmann 1976: 112 참조). 순전히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들 동사가 완전동사로 사용되었는지, 조동사로 사용되었는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2인칭 복수의 모든 형태는 직설법 현재의 형태와 발음상으로 잘 구별되지

8) 대체로 ‘화법조동사 + 부정형’의 구조로 나타나는 화법조동사의 높은 빈도를 고려할 때, 간접화법에 있어서도 문장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술어구조가 우세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9) 변음을 하는 접속법 II식의 형태는 간접화법에서 제약을 받지 않고 쓰이고는 있다. 예: Dellmann fände es sogar sinnvoll, die Kontrolle nicht mehr zentral in Stellenwerken zu organisieren, [...] (Welt 30.09.2002)  
필자가 자료로 삼은 신문기사문에는 “wäre”, “hätte”, “würde”, “könnte”, “müsste”, “dürfte” 이외에 다음과 같은 동사의 형태를 볼 수 있었다:  
gäbe, käme, fände, begännen, gelänge, vorlägen, stünde, entstünde, zunähmen, trügen, spräche, zwängen.

10) “wollen”은 접속법 II식의 형태로 쓰이지 않는다.

않으며, 문어체의 표준어의 문체상으로 까다로운 텍스트에조차 거의 나오지 않는다. 예: ihr steh-t : ihr steh-et

2인칭 단수의 접속법 I식의 형태는 직설법 현재의 형태와 잘 구별되지 않기도 하고, 분명히 구별되기도 한다.

예: du steh-st, du steh-est; du komm-st, du komm-est  
du fähr-st, du fahr-est; du darf-st, du dürf-est

약변화 동사의 접속법의 변화표 안에서의 “-t”는 접속법 I식과 접속법 II식을 구별해 준다. 직설법에도 역시 이 “-t” 요소가 나온다. 약변화 동사의 접속법 II식에 있어서의 “-t” 표지는 직설법에서는 시제(과거)에 관한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접속법에서는 아무런 시제상의 기능을 갖지 않으며, 화법상으로 해석된다 (Lohnstein 2000: 89 참조).

약변화동사에 있어서 접속법 II식의 형태가 접속법 I식의 형태와 다른 점은 “어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 접속법 I식: “mach-e” ; 접속법 II식: “macht-e”. “e”를 갖는 “machte”를 직설법의 어간형태로 가정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의 문제점은 그렇게 되면, 직설법에 있어서의 “e”는 접속법과는 다른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될 수 있다 (Eisenberg 1999: 105). 여기에 있어서 그 차이는 어간은 모음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절적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t”로써 표시되어 있다. 그리하여 약변화동사에 있어서 직설법 과거와 접속법 II식(과거)은 형태상으로 일치한다<sup>11)</sup>. 말하자면 직설법 과거와 접속법 과거 사이의 대립은 소멸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접속법이 아주 소멸되는 데 대한 한 가지의 요인으로 볼 수 있거나, 소위 “würde”의 구조로 대체되는 데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형태상의 융합 Synkretismus을 두고서 독일어의 굴절변화 방식의 모든 형태에서부터 접속법 II식의 형태는 점차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Eisenberg 1999: 127 참조).

11) 약변화 동사에 있어서는 형태상으로 보아 아무런 고유한 접속법 II식이 없다. 약변화 동사의 과거 형태는 서법에 있어서 중립적이다 (Hansen 1997: 14f. 참조).

이렇게 볼 때, 직설법:접속법의 서법상의 대립은 정형의 활용체계에 있어서 실제로 현재:과거의 시제상의 대립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는 볼 수 없다.

약변화 동사의 접속법 II식은 직설법의 형태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접속법 II식의 기능은 다른 형태에 의해 유지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접속법 II식의 기능이 흔히 “würde + 부정형”으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대체형태로서 드물지 않게 접속법 I식 대신에 접속법 II식이나 “würde”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문어체의 텍스트에서 3인칭과 1인칭 복수의 동사형태에 적용된다. 이러한 대체규칙에는 간접화법은 굴절의 표시로 접속법이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암시적으로 들어 있다.

여하튼 접속법 I식(현재·현재완료) 대신에 접속법 II식(과거·과거완료)이 분명히 “본질적인 의미 변화” 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흔히 주장되고 있다 (Eisenberg 1999: 120). 접속법 I식은 직설법에 대하여 형태상으로 흔히 잘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sup>12)</sup>, 접속법이 접속법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접속법 II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강변화 동사에 있어서 접속법 II식(과거)은 언제나 직설법 과거와 구분이 된다. 왜냐하면 접속법은 과거형 어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대체규칙’은 그 일반적인 형태에 있어서 타당도가 낮다. 접속법 형태의 빈도에 관한 얘거 Jäger의 연구에 따르면, 접속법의 모든 형태의 약 90%가 3인칭 단수 형태이며<sup>13)</sup>, 간접적인 맥락에서의 접속법 형태의 80% 이상이 역시 3인칭 단수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접화법에 있어서의 접속법 II식 형태의 약 20%가 1인칭이다. 접속법 현재와 직설법 현재는 바로 3인칭 단수에서 언제

12) 아래의 예문에서는 직설법과 접속법 I식이 구분이 안 된다.

Rund 1500 Wissenschaftler *arbeiten* inzwischen mit C. elegans, sagt Ralf Sommer vom Max-Planck-Institut für Entwicklungsbiologie in Tübingen. (Welt 08.10.2002)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접속법 I식이 대체된 형태인지, 원래 접속법 II식인지 애매하다.

예: Diese Männer *hätten* die “Geschichte verändert”.(FAZ10.09.2002)

13) S. Jäger (1971: 18-20), U. Engel (1969: 75-84), G. Kaufmann (1976: 108) 참조.

나 구별되므로, 이 대체규칙은 무엇보다도 1인칭 단수와 드물게 나타나는 1인칭과 3인칭 복수에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간접화법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한 접속법 II식의 형태는 그러나 이중적인 의미를 낳기도 한다. 맥락으로 어느 정도 그 의미를 가려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접속법 II식으로 간접화법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건적인 관계를 나타내려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 (4) Der Wirtschafts- und Währungskommissar hatte bereits zuvor mehrmals betont, *sollte* ein Staat die drei-Prozent-Grenze verfehlen, *würde* die Kommission "automatisch" ein solches Verfahren einleiten. (FAZ 17.10.2002)

또 다른 애매한 점은 약변화 동사의 경우에, 간접화법에 사용된 접속법 II식의 형태가 직설법 과거의 형태와 구별되지 않는 데에도 있다. 상대적으로 잘 표시되는 강변화 동사의 접속법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약변화 동사의 과거형에 있어서는 아무런 접속법의 표시가 없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다.

- (5) Hawwas meint, dass die beiden Kupferstifte möglicherweise Schlange *darstellten*, die Türen "bewachten", die der König auf seinem Weg zum Himmel öffnen sollte. (Welt 01.10.2002)
- (6) Die Forscher vermuten jedoch, dass sie zeremoniellen Zwecken *diente*, möglicherweise als Prozessionsweg. (Welt 01.10.2002)

그러나 이 이중적인 의미는 대체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문맥으로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 3.2. 강변화 동사의 접속법 표지로서의 변음

강변화 동사의 어간 형태는 많게는 다섯 가지의 모음을 나타내 보인다.

예: helf - hilf - half - hülft - helf.

일련의 강변화 동사에 있어서는 접속법 II식의 형태는 직설법 과거형의 간모음이 변음된 형태 이외에, 또 다른 간모음의 변음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현대 독일어에 있어서도 옛날의 변모음을 가질 수 있는 “hülft-”, “stürb-”, “begönn-”, “empföhl-” 등과 같은 접속법의 어간형태는 변음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단수형·과거의 통상적인 변음이 아니라, 옛날의 복수인칭의 모음의 변음이라고 할 것이다. (예: 중세독어에서의 “süng-” < “singen”) 어쨌든 이러한 동사에는 두 가지 형태의 접속법이 있다. 예를 들면, “sie begännen”과 “sie begönnen”의 경우에는 전자의 형태가, “sie empfählen”과 “sie empföhlen”의 경우에는 후자의 형태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Duden 1973: 127f. §290, Duden 1988: 125, §229).

접속법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간의 형태는 중요하다. 예컨대 “nehmen”, “geben”, “sehen” 등의 접속법 II식의 형태는 [æ]의 발음으로 만들어진다<sup>14)</sup>. [e] - [æ] 내지는 [ε] - [ε]의 대립은 기능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직설법과 접속법의 형태간의 구분은 예컨대 “e” [e]와 “ä” [ε]의 발음상의 차이에서 보듯이, 그 변별력이 떨어짐으로써 어렵게 되어 있다 (Eisenberg 1997: 45). 이 때문에 아마도 몇몇 동사는 접속법이라는 형태를 더 이상 갖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Eisenberg 1997: 45). 왜냐하면 변음과 관련된 조정과정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아마도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4) 강변화 동사에 있어서 직설법 과거형의 어간과 접속법 II식 형태의 변음된 간모음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대립이 있을 수 있다. (Kaufmann 1976: 104 참조).

[a] :	[ε]	sie fanden	sie fänden
[ɑ:] :	[ε:]	sie kamen	sie kämen
[ɔ] :	[œ]	sie schlossen	sie schlössen
[o:] :	[ø:]	sie verloren	sie verlören
[u:] :	[y:]	sie trugen	sie trügen

직설법 과거형의 “[a]” 음은 접속법 II식 형태의 “[æ]” 음으로도 변음될 수 있을 것 같다. 위에 든 접속법 II식 형태에서의 변모음화된 간모음 가운데 “schlössen”과 같은 예는 필자가 연구자료로 모은 텍스트에서는 볼 수 없었다.

### 3.3. 약음 “e”의 지위

굴절형태(론)의 층위에서 직설법과 접속법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접속법 I식과 접속법 II식 사이에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굴절형태로 보면 약음 요소 “-e”에 의해서 직설법과 접속법이 구분된다. 그러한 요소를 이미 갖고 있는 약변화 동사의 과거형에 있어서는 직설법과 접속법의 구분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강변화 동사에서는 2, 3인칭 단수와 2인칭 복수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약음은 시제(간모음교체)와 인칭/수의 어미 사이에 나타나는 교착 어미이다. 아이젠베르크에 따르면, 약음은 접속법에서도 필수적이지 아니며, 어형의 다른 특성과 상호작용을 한다 (Eisenberg 1997: 47). 특히 인칭어미 “-st” [st] (공명이 적음)는 가장 무거우며, 여기에 모음 상승이나 변음이 부가될 수 있다 (예: “gibst”, “schläfst”). “-n”과 같이 공명음이 나는 어미는 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sängest”와 같은 접속법 형태는 아주 무겁게 표시되어 있다 (변음 + 무거운 어미 + 약음). 이러한 경우에 약음은 수의적이다 곧, “du sängst”, “du nähmst”. 그러나 접속법 형태로서 “du riefst”, “du glichst”는 허용되지 않는다 (Eisenberg 1997: 48).

“sein” 동사에 있어서 2인칭 단수에서는 “du seiest”보다는 “du seist”가 흔히 쓰이는 형태이며, 2인칭 복수의 접속법 I식 형태는 오늘날에는 접속법 II식의 형태 “ihr wär(e)t”으로 대체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Kaufmann 1976:96).

“rufen”과 같은 형태에 대해서는 정동사 형태로서 두 가지의 형태론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직설법의 형태로서 두 개의 형태론적인 단위와 발음 편의상의 약음을 갖는다. 예컨대 (ruf en). 접속법에 있어서는 그것은 세 개의 형태론상의 단위를 갖는다. 예컨대 ((ruf e)n) (Eisenberg 1997: 56 참조).

어간이 2음절인 동사의 접속법 형태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비음으로 끝나는 유형(예: atmen, zeichnen)과 유음으로 끝나는 유형(예: handeln, ändern)의 접속법에 대한 변별성은 3인칭 단수에 제한되어 있다.

직설법 현재 “zeichn -et” : 접속법 I식(현재) “zeichn -e”,

직설법 현재 “handel -t” : 접속법 I식(현재) “handel -e”.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접속법 형태로서의 약음은 생략이 되지 않는다<sup>15)</sup>.

(7) Im Streit um die Waffeninspektoren *ändere* Irak seine Positionen  
 “öfter als Saddam Hussein seine Bunker wechselt”, sagte der  
 Sprecher von US-Präsident George W. Bush, [...] Ari Fleischer,  
 am Montag in Neville Island im Bundesstaat Pennsylvania. (Welt  
 03.09.2002)

(8) Bei dem Auto *handele* es sich um einen blauen Chevrolet Caprice,  
 Baujahr 1990, mit Nummernschildern aus dem US-Staat New Jersey.  
 (FAZ 24.10.2002)

이와는 달리, 강변화동사는 직설법 현재의 형태에 있어서 1인칭·단수 어미 약음의 “e”는 생략된 채로 쓰일 수 있다<sup>16)</sup>.

모든 어형에 있어서 어간에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는 “e”를 “접속법의 형태” Konjunktivmorph로 간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Eisenberg 1999: 104), 굴절형태소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약음이 나타나는 것은 음조의 조건에 의해서 예견될 수 있다고 하겠다 (Lohnstein 2000: 89 참조). 그리고 이 서법표지는 인칭과 수에 대한 표지의 왼쪽에 있다<sup>17)</sup>.

15) 아래의 예는 직설법의 형태로 볼 수 있다.

Bundeswirtschaftsminister Werner Müller sagte, es *handle* sich bisher um eine Kreditzusage, die geprüft werde. (Welt 16.09.2002)

16) 1인칭 단수 현재형으로서 “red”, “bet”, “biet”는 비문법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fahr”, “leg”, “ruf”와 같은 형태와 동일한 의미에서는 표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isenberg 1997: 51 참조).

17) 정동사 형태의 체계에 있어서의 접속법의 위치와 관련하여, 동사의 기능 범주 부호화는 아래와 같은 위계를 따라야 한다고 가정되고 있다.

인칭>수>서법>시제>양상 Aspekt>태 Genus verbi

독일어에 있어서의 접속법은 시제의 표지와 융합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의 표지와 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서법과 수/인칭 사이에 경계를 둘 수 있는 것은 시제와 서법이라는 고유한 동사의 범주는 통사론상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간모음에 있어서의 모음교체는 어미보다 높은(훨씬

이제 접속법의 문장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간접화법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접속법의 형태가 사용되는 것은 특정한 통사론상의 구조와 결부되어 있으며, 동사 서법의 형태 사이에 있어서의 변별력의 상실은 부분적으로는 통사론상으로 다시금 판별될 수 있기에, 문장구조 속에서 접속법의 형태를 보아야 할 것이다.

#### 4. 통사론적 고찰

##### 4.1. 간접화법의 양태

우선 간접화법에서의 접속법이 나오는 문장형태를 보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대격의 보충어문장 이외에도 특히 전치사격 보충어문장(흔히 전치사가 생략되고서)과 수식어문장, 관계문 등이 있다.

###### i) 전치사격 목적어로서의 보충어문장

(9) Der Grünen-Sozialexperte Markus Kurth warnte, *die Zwangs-Rente werde schwierige Verfassungsfrage aufwerfen.*(Welt 17.11.2002)

위의 예에서는 “warnte” 다음에 “davor”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겠다.

###### ii) 수식어문장

(10) Auch der ehemalige saudische Erdölminister Scheich Jamani, äußerte den Verdacht, *Washinton versuche unter dem Deckmantel des “Krieges gegen den Terror” die Vorherrschaft über die Energiereserven des Kaspischen Meeres zu erlangen.* (FAZ 16.09.2002)

---

오른 쪽에 있는) 범주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법의 범주는 인칭의 범주보다는 시제의 범주와 융합된다고 볼 수 있다 (Eisenberg 1997: 42 참조).

iii) 관계문

- (11) Die Geiselnnehmer, *die Familienmitglieder in dem Krieg verloren hätten*, seien sehr entschlossen.(Welt 24.10.2002)
- (12) Bei dem geplanten Darlehen handele es sich um einen Marktkredit, *dessen bankmäßige Besicherung nach den üblichen Kriterien geprüft* werde.(Welt 17.09.2002)

간접화법에 있어서 그 원인행위자(최초의 발화자)는 제삼자이거나 화자 자신이다. 간접화법(피전달문)은 통사론상으로는 내용상으로 말로 표현된, “그(녀)가 (... 라고) 말하(였)다”라는 의미의 “inquit”의 요소 아래 종속되어 있다 (Lauridsen/Poulsen 1999: 299f.).

피전달문을 이끄는 요소는 문장이나 텍스트에서 그 위치에 있어서는 중립적이다. 말하자면 “inquit” 요소는 피전달문 다음에나 그에 앞서서 또는 피전달문의 한 가운데에 삽입되어 나올 수 있다.

명시적인 “inquit” 요소는 간접화법의 형태에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 문체상으로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 앞에 오는 경우

- (13) *Schröder sagte vor Delegierten aus 190 Staaten*, der Klimawandel sei inzwischen „bittere Realität,..“ (Welt 02. 09, 2002)

ii) 가운데 삽입되는 경우

- (14) Zunächst, *sagte Eid in Johannesburg*, werde man nicht ganz auf Diesel verzichten können.(Welt 03.09.2002)

iii) 뒤에 오는 경우

- (15) Bei den Angriffen sei ein Radarsystem für die Zivilluftfahrt zerstört und die Abfertigungsgebäude beschädigt worden, *sagte ein irakischer Regierungssprecher*.(FAZ 11.10.2002).

iv) 의사전달동사가 생략되는 경우

- (16) Innerhalb dieser Zeit veralte 50 Prozent des technischen Wissens, *so Bauch*. (Welt 30.10.2002)

독일어 표준어의 문어체 텍스트에 있어서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 간접화법은 대개는 종속접속사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Kaufmann 1976: 112), 필자가 연구자료로 삼은 신문의 기사문에는 “dass”로 인도되는 부문장의 간접화법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그밖의 접속사로는 “ob”, “inwieweit”가 있었다.

- (17) Doch müsse man noch untersuchen, ob sie sich auch wirtschaftlich umsetzen ließe. (Welt 30.09.2002)
- (18) Auch wurden sie gefragt, inwieweit sie solche Hilfe selbst in Anspruch nähmen oder ob sie seelischen Beistand leisteten oder bekämen, [...] (Welt 15.11.2002)

동사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화법과 이른바 보고화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간접적인 발화가 잇따르며, 간접화법을 인도하는 동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주문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문장은 인도된 부문장의 형식으로가 아니라, 정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오는, (접속사로) 인도되지 않은 부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접속법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장들은 종속적인 문장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주문장으로, 그리고 간접화법은 간접적인, 매개된 것으로가 아니라, 말하는 이의 직접적인 발화로 이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Buscha/Zoch 1984: 40).

- (19) In ihrer ersten Rede als Fraktionsvorsitzende warf CDU-Chefin

Angela Merkel dem Kanzler vor, er *habe* nicht die Fähigkeit, das Land zu führen. Er *sei* seine "eigene Erblast". Das Regierungsprogramm *bremse* Deutschland und *mache* Wachstum unmöglich. (Welt 30.10.2002)

간접화법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접속법 이외에도 다른 형태상의 수단이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접속법을 사용한 화법만을 간접화법으로 볼 수 없다. 피전달문을 이끄는 동사 뒤에 접속법의 부문장의 형태로 되어 있는 간접화법 이외에 간접화법을 표현하는 특별한 형태가 있다. 축어적이 아닌 화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다.

#### 4.2. 간접화법의 다른 형태

옮겨지는 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사전달)동사, 그 동사의 명사화, 부문장, 대명사 또는 부사의 교체와 같은 표현 수단이 있다 (Buscha/Zoch 1984: 22). 여기에 두 가지의 부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Buscha/Zoch 1984: 43), 첫째 부류는 — 특히 언론의 보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 화법을 인도하는 동사를 갖는 주문장 대신에 피전달문에 통사론상으로 종속되는 “wie”로 시작되는 문장으로, 또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표현을 전치사를 빌어서 풀어쓰는 경우인데, 간접화법은 ‘직설법’의 주문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두 번째의 부류는 간접화법을 인도하는 동사 뒤의 피전달문이 부정사구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피전달문이 명사화된 경우이다.

##### a) 전치사구<sup>18)</sup>

다음과 같이, 전치사 “nach” 이외에 “zufolge”, “laut” 등의 어휘적인 표현이 있다.

18) 전치사구의 표현 이외에 부사 “angeblich”도 들 수 있으나, 필자의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다.

i) nach:

(20) *Nach Angaben von Experten* gibt es zwischen dem Beben und dem Ausbruch des Ätnas auf Sizilien keinen Zusammenhang. (Welt 01.11.2002)

ii) zufolge:

(21) *Augenzeugen zufolge* hatte er zusammen mit anderen Jugendlichen Brandbomben und Steine auf israelische Panzer geworfen. (Welt 16.11.2002)

iii) laut:

(22) *Laut „Spiegel“*, plant Eichel eine Erhöhung der Neuverschuldung bis zu 13 Milliarden auf rund 34 Milliarden Euro. (Welt 30.09.2002)

아래와 같은 전치사구의 표현도 위의 예문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In einer Pressemitteilung der Bundesregierung* hieß es, nach einer Anlaufphase werde ein jährliches Gesamtvolumen von bis zu zehn Milliarden Euro angestrebt. (FAZ10.09.2002)

(24) *In einer Stellungnahme des FBI* hieß es, es gingen weiterhin zahlreiche Terrorwarnungen ein, deren Verlässlichkeit nicht geklärt sei. (FAZ 11.09.2002)

전치사구의 표현은 다음과 같이 주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25) Eichel führte nach Angaben eines Ministeriumssprechers am Freitag weitere Chefgespräche mit anderen Bundesministern. (16.11.2002)

→ Ein Ministeriumssprecher hat am Freitag gesagt, Eichel habe weitere Chefgespräche mit anderen Bundesministern geführt.

(26) Nach Ansicht des deutschen Klimaexperten [...] gefährdet der

globale Klimawandel vor allem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n den armen Entwicklungsländern.(Welt 29.10.2002)

→ Der deutsche Klimaexpert ist der Ansicht, der globale Klimawandel gefährde vor allem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n den armen Entwicklungsländern.

b) “wie”-문장과 접속법

“ [...] wie eine Bahnsprecherin sagte”(Welt 17.11.2002)와 같이 “wie”로 시작되는 첨가어문장은 특히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피전달문과 연결되어 있는 주문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27) *Wie Diplomaten am Abend mitteilten*, einigten sie sich auf die letzten Details zur Bekämpfung der Armut [...].(Welt 03.09.2002)

(28) In Nablus wurde ein 17-jähriger Palästinenser von israelischen Soldaten erschossen, *wie Ärzte mitteilten*.(Welt 16.11.2002)

보충어문장이 아닌 위(예문 27)와 같은 “wie”-부문장은 주문장으로, 원래의 주문장은 부문장으로 변형될 수 있다 (Starke, 1980: 668).

(29) → Diplomaten haben am Abend mitgeteilt, sie hätten sich auf die letzten Details zur Bekämpfung der Armut.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보도의 출처를 말해주는 “wie”로 시작되는 첨가어문장은 텍스트 종류로서의 기사문에 굳어져 있는 표현이다. 말을 옮기는 이러한 표현구조는 피전달문에 연결되는 전달문과 아주 유사하여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이미 접속법의 형태가 들어와 있다<sup>19)</sup>. 이러한 접속법을 “저널리즘의 접

19) 출처를 밝히는 “nach”의 전치사구 다음에도 직설법이 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접속법이 사용된 예를 볼 수 있다.

Nach den jetzt in „Nature„ veröffentlichten Kalkulationen der Forscher *könnte* ein großer Teil dieses zusätzlichen Anstiegs auf die Brände in Indonesien zu-

속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Kaufmann 1976:150).

- (30) Die Forschungen der drei Nobelpreisträger *seien* von grundlegender Bedeutung für die Medizin, wie es in der Begründung des schwedischen Nobelpreiskomitees in Stockholm hieß. (Welt 08.10.2002)

c) 부정사구문

- (31) *so rate er ihr, erst einmal abzunehmen.* [...] (Welt 16.11.2002)  
(32) Bush versprach denn auch, *mit dem UN-Sicherheitsrat zusammenzuarbeiten.*(FAZ 13.09.2002)

부정사구문은 종속관계는 알 수 있게 해 주지만, 서법에 있어서는 중립적이다 (Becher 1989: 74). 예컨대, “auffordern”과 결합되는 부정사 구문 안에는 ‘요청’의 의미요소가, “versprechen”과 결합되는 부정사 구문 안에는 ‘미래’의 의미요소가 걸으므로는 표현되지 않으나, 문장형태의 간접화법에서는 의미에 따라 화법조동사 “müssen”/“sollen”/“mögen” 등이, 또는 미래형의 조동사 “werden”이 각기 드러나게 된다.

- (33) *so rate er ihr, erst einmal abzunehmen.*  
→ Er sagte, sie *müsse* erst einmal abnehmen.  
(34) Bush versprach denn auch, *mit dem UN-Sicherheitsrat zusammenzuarbeiten.*  
→ Bush versprach denn auch, er *werde* mit dem UN-Sicherheitsrat *zusammenzuarbeiten.*

이와 반대로 문장형태의 피전달문을 부정사구문의 형태로 바꾸어 쓸 수 있다<sup>20)</sup>.

---

rückzuführen sein.(Welt 12.11.2002)

20) 예컨대 아래와 같은 동사에 있어서는 부정사구문으로만 표현해야 한다 (Kaufmann 1976: 143).

(35) In ihrer ersten Rede als Fraktionsvorsitzende warf CDU-Chefin Angela Merkel dem Kanzler vor, *er habe nicht die Fähigkeit, das Land zu führen.*(Welt 30.10.2002)

→ In ihrer ersten Rede als Fraktionsvorsitzende warf CDU-Chefin Angela Merkel dem Kanzler vor, *keine Fähigkeit zu haben, das Land zu führen.*

d) 명사화

(36) Das sensationelle *Eingeständnis* Nordkoreas, im Bruch eines Verichtsabkommens seit 1994 Atomwaffen entwickelt zu haben und über weire einsatzbereite Massenvernichtungswaffen zu verfügen, ist von den Vereinigten Staaten zweieinhalb Wochen lang unter Verschluss gehalten worden.( Welt 18.10.2002)

명사를 수식하는 부정사구문을 수식어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37) das Eingeständnis Nordkoreas, [...] Atomwaffen entwickelt zu haben

→ das Eingeständnis, Nordkorea habe Atomwaffen entwickelt

이밖에 보충어문장이 대명사화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예도 있다.

(38) Das sagte Fischer am Ddonnerstag bei der Nato-Debatte im Bundestag. (Welt15.11.2002)

e) 화법조동사

---

\*Er verbot mir, ich dürfe das Haus nicht verlassen.

\*Er warnte mich davor, ich solle mich auf dieses Unternehmen auf gar keinen Fall einlassen.

i) wollen:

(39) Ex-Staatsminister Bernd Schmidbauer(CSU) und  
Ex-Wirtschaftsminister Helmut Haussmann(FDP) wollen Kohls  
Äußerung laut „Spiegel, nicht gehört haben. (FAZ 02.09.2002)

화법조동사로써 화자는 발화의 신뢰성에 다소 강한 유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aufmann 1976: 140 참조). 주로 3인칭에 사용되는 “wollen + 부정형”의 간접화법은 동사 “behaupten”으로 인도되는 간접화법의 접속법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전달문(주문장)의 주어(최초의 화자)와 피전달문의 주어와 동일하다.

(40) Sie *wollen* Kohls Äußerung gehört haben.  
→ Sie *behaupten*, sie hätten Kohls Äußerung gehört.

ii) sollen:

(41) In einer Nacht *soll* so viel Regen gefallen sein wie sonst in sechs  
Monaten. (Welt 10.09.2002)

위와 같은 화법에 있어서는 화자는 그가 한 발화의 진위 여부에는 상관하지 않고서, 발화의 내용을 언급한다. “sollen + 부정형”에 있어서는 화자는 제3자의 발화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다. 위의 “sollen + 부정형”의 언급에는 최초의 화자가 지칭되어 있지 않다<sup>21)</sup>.

이로써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접속법의 양상을 일별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점차로 분석적인 접속법 II식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würde”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

21) 일종의 간접화법으로서의 “sollen” + 부정형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man sagt, ...” 또는 “es heißt, ...”의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sollen”과 함께 쓰인 부정형의 형태는 간접화법의 접속법에 상응한다 (Kaufmann 1976: 141f. 참조).

## 5. “würde”의 형태

조동사 “werden”은<sup>22)</sup> 그 과거형으로 만들어진 접속법 II식의 형태 “würde”로써 다른 동사의 부정형과 결합하여, 이 다른 동사의 접속법 II식을 바꾸어 쓰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würde” 구조의 풀어쓰는(문장을 에워싸는) 방식으로의 대응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Wolf 1995: 193 참조). 옛날의 규범적인 학교문법에서는 이렇게 고쳐 쓰는 것은 주문장에만 용인되었다. 그러나 구어체에서는 부문장에서도 점점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현대 작가들의 글에게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강변화 동사의 접속법 형태는 불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강변화 동사의 단순한 접속법의 형태(특히 “ö”변음의)가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약변화 동사의 접속법 II식은 형태상으로는 과거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würde”로 고쳐 쓰는 것은 불분명한 형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접화법에도 접속법 I식이 직설법과 형태가 같을 때, 그 대체형태로서 “würde”로 바뀌 쓰는 형태가 나온다. “ä”, “ö”. “ü”로 변음이 되어 있는 접속법 II식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카우프만은 간접화법에 있어서 “würde”로 바뀌 쓰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 곧 “würde + 부정형”으로 미래의 사건을 가리키거나, “würde”의 형태가 이미 간접화법에 있을 때에만 올바른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Kaufmann 1976: 30). 이 두 조건 이외에서의 “würde” 형태의 사용은 규범문법에서는, 해당되는 접속법 II식의 형태가 잘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용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würde” 형태는 미래의 의미를 지니면서, 한편으로는 동사 서법(접속법 I식)의 불분명한 형태(주어가 복수인 경우)를 대

22) “werden”의 접속법 I식과 접속법 II식의 형태는 다양하게(미래, 수동형의 조동사, 완전동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빈도가 높다.

접속법 II식으로서의 “würde” 형태는 본래 수동형으로서의 용법도 있다.

예: Die Verdächtigen würden zurzeit vernommen, hieß es. (Welt 10.09.2002)

Weitere Menschen würden in Sicherheit gebracht.(FAZ 15.11.2002)

채하고 있기도 하다.

(42) Danach *würden* die ersten Experten bereits Mitte Oktober in Bagdad eintreffen. (Welt 20.09.2002)

(43) Daher glaube ich nicht, dass solche Maßnahmen die Konjunktur weiter belasten *würden*. (FAZ 01.10.2002)

접속법 II식은 일반적으로 조건문으로 해석되는 문장에서, “wenn - dann”의 문장<sup>23)</sup>에서와 같은 두 부분의 형태를 갖지 않는다고 해도, ‘가능성의 화법’ 또는 ‘비현실 화법’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Eisenberg: 116). 이러한 문장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또는 비현실적인 성격은 선행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양상 Modalität의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접속법만으로 생긴다는 사실은 아래의 예문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가능성과 비현실성에 대한 조건은 언어상으로는 함축적이다.

(44) Die Spitzenverbände der Industrie und der Arbeitgeber erklärten, bei Umsetzung der Pläne *würde* sich die wirtschaftliche Talfahrt in Deutschland beschleunigen. (Welt 17.10.2002)

(45) Ein Krieg *würde* dagegen die Kurse noch einmal richtig zurückwerfen. (FAZ 19.09.2002)

(46) Wir haben immer gewarnt, dass das Arbeitsplätze kosten *würde*. (FAZ 01.10.2002)

“würde” 형태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Fabrius-Hansen 1997: 16ff.). 첫번째 견해는 “würde”구조의 시제·서법의 체계에 있어서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구조를 접속법으로 파악하

---

23) “würde” 형태의 구조와 관련하여 ‘조건법’이라는 용어가 더러 쓰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서법을 상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서법을 가정하게 될 것이므로, 조건법이라는 용어는 현대 독일어에서는 부적합한 것 같다 (Zifonun, /Hoffmann/Strecker 1997: 1736, Wolf 1995: 197 참조). 그것은 불문법에 있는 용어이다.

지 않고, 서법상 이중적인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würde” 형태는 서법에 있어서 애매하며, 미래에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würde” 형태를 미래와 미래완료에 대한 접속법 II식의 형태로 취급하고 있다. “würde” 구조는 경우에 따라서는 곧 분석적인 접속법 II식(“접속법 과거 내지는 과거완료”의 대응으로서)으로 사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두번째의 견해는 “würde” 구조는 전적으로 시제상 각기 단순한 “접속법 과거”와 “접속법 과거완료”에 해당되는 접속법 II식의 분석적인 형태라고 보는 것이다.

세번째의 견해는 “würde”의 구조는 순전히 형식적인 이유에서 접속법 I식과 접속법 II식에 대비되는 독자적인 접속법 III식의 변화방식이라는 것이다 (Fabrius-Hansen 1997: 23).

여하간 “würde” 형태에 대한 문제는 문장 안에서만 살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맥을 고려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Wolf 1995: 201). “würde”로 표현하는 것은 접속법을 바꾸어 쓰는 것일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접속법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würde” 형태의 표현은,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흔히 시제(이른바 “과거 미래” Futurum praeteriti)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7) Dieses Jahr sei ab Juli sichtbar geworden, dass der Aufschwung im zweiten Halbjahr nicht so stark sein würde wie erwartet, sagte er zur Begründung. (FAZ 17.10.2002)

시제에 있어서도 ‘양상’은 중요하다. 시간성은 언제나 화자의 관점과 의도에 달려 있으며, 인식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시간성과 양상은 서로 아주 깊은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Wolf 1995: 201 참조).

## 6. 맺는 말

간접화법에서는 직설법의 서법 형태, 접속법 I식, 접속법 II식, 그리고 “würde”로 바꿔 쓰는 형태가 나올 수 있지만, 주로 접속법 I식이 (특히 문어체에는) 간접화법을 표시하는 데 쓰인다. 접속법 I식이 간접화법임을 알리는 유일한 표시이고, 간접화법이 독립된 문장으로 나타나는 보고화법의 형태인 경우에는 접속법이 전적으로 사용된다

접속법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동사의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본고에서는 동사의 형태를 우선적으로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접속법의 모든 형태에 나타나는 약음 “e”는 접속법의 형태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분명하면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접속법 I식의 형태는 3인칭 단수를 제외하고서, 거의 다만 몇몇 빈도가 높은 (조)동사에 나타난다고 할 때, 정형의 활용범주로서의 접속법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주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접속법의 형태에 있어서 변별력이라는 기준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강변화 동사에 있어서 접속법 II식의 형태가 보통 잘 사용되지 않는 데 대한 중요한 이유는 간모음의 발음이 접속법 I식의 그것과 잘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 bergen과 같은 동사). 약변화 동사에 있어서도 접속법 II식의 형태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별력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애매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는 통사론 상으로 다시금 판별이 가능해진다.

접속법 I식은 간접화법에 대한 확실한 표시이지만, 그에 대한 유일한 표시는 아니다. 피전달문을 이끌어들이는 의사전달동사와 종속접속사가 있을 때, 곧 간접화법이라는 것이 충분히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접속법 I식은 중복되는 표시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직설법으로 나타나는 간접화법의 몇 가지 유형을 통사론상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적인 접속법 II식의 형태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는 “würde” 형태는 시제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아마도 유일한 접속법 II식의 형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선불리 예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24)</sup>

24) 18세기의 초에 *würde*의 구조와 접속법 과거 형태의 비율이 이미 6:4 였다고 한다

접속법의 명백이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확실히 특정한 통사론상의 구조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법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접속법의 사용에 대한 규정은 완화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간접화법에, 특히 구어체에, 접속법 II식, “würde”의 형태, 또는 직설법이 사용되어도 그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더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간접화법의 문장을 텍스트 구성의 관점에서 고찰해보는 것도 남은 과제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 Becher, Maris(1989): Der Konjunktiv der indirekten Rede. Eine linguistische Analyse der „Skizze eines Verunglückten,“ von Uwe Johnson. Hildesheim · Zürich · New York.
- Braun, Peter(1987): Tendenzen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Sprachvarietäten. 2. Aufl. Stuttgart · Berlin · Köln · Mainz. S. 143ff.
- Buscha, Joachim/Zoch, Irene(1984): Der Konjunktiv. Leipzig.
- Buscha, Joachim(1987): Altes und Neues vom Konjunktiv. In: Deutsch als Fremdsprache 24, S. 68-75.
- Calbert, Joseph P./Vater Heinz(1975): Aspekte der Modalität. Tübingen.
- Duden(31973, 41984, 51995, 61998):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Mannheim · Leipzig · Wien · Zürich.
- Eisenberg, Peter(1986): Grundriss der deutschen Grammatik. Stuttgart.
- Eisenberg, Peter(1997): Konjunktiv als Flexionskategorie im gegenwärtigen Deutsch. In: Germanistische Linguistik 136, S. 37-56.
- Eisenberg, Peter(1999): Grundriß der deutschen Grammatik. Bd. 2. Der Satz. Stuttgart/Weimar.
- Engel, Ulrich (1969): Das Mannheimer Corpus. In: Forschungsberichte des Instituts für deutsche Sprache 3, Mannheim, S. 75-84.
- Fabius-Hansen, Cathrine(1989): Tempus im indirekten Referat. In: Tempus

- Aspekt - Modus. Die lexikalischen und grammatischen Formen in den germanischen Sprachen. Hrsg. von Werner Abraham und Theo Janssen. Tübingen. S. 155-182.
- Fabius-Hansen, Cathrine(1997): Der Konjunktiv als Problem des Deutschen als Fremdsprache. In: Germanistische Linguistik 136, S. 13-36
- Fabius-Hansen, Cathrine(2000): Die Geheimnisse der deutschen würde-Konstruktion. In: Deutsche Grammatik in Theorie und Praxis. Hrsg von Rolf Thieroff, Matthias Tamrat, Nanna Fuhrhop, Oliver Teuber. Tübingen. S. 83-96.
- Flämig, Walter, 1991: Grammatik des Deutschen. Einführung in Struktur- und Wirkungszusammenhänge. Berlin.
- Glinz, Hans(1994): Grammatiken im Vergleich. Deutsch - Französisch - Englisch - Latein. Formen - Bedeutungen - Verstehen. S. 131ff.
- Glück, Helmut-Sauer/Wolfgang Werner(1997): Gegenwartsdeutsch. 2. Aufl. Stuttgart · Weimar, S. 63ff.
- Jäger, Siegfried(1971): Der Konjunktiv in der deutschen Sprache der Gegenwart. Untersuchungen an ausgewählten Texten (=Heutiges Deutsch I/1). München · Düsseldorf.
- Helbig, Gerhard / Buscha, Joachim(1972, 81984, 111988): Deutsche Grammatik. Ein Handbuch für den Ausländerunterricht. Leipzig.
- Kasper, Walter(1987): Semantik des Konjunktivs II in Deklarativsätzen des Deutschen. Tübingen.
- Kaufmann, Gerhard(1976): Die indirekte Rede und mit ihr konkurrierende Formen der Redeerwähnung. München.
- Lauridsen, Ole/Poulsen, Sven-Olaf(1999): Es leben Konjunktiv I und II. In: Ausdrucksgrammatik versus Inhaltsgrammatik. Hrsg. von Renate Freudenberg-Findeisen. München. S. 297-304.
- Lohnstein, Horst(2000): Satzmodus - kompositionell. Zur Parametrisierung der Modusphrase im Deutschen. Berlin. (= studia grammatica 49). S. 83-112.
- Melenk, Hartmut(1985): Der Konjunktiv in journalistischen Texten. In: Praxis Deutsch 71, S. 51-56.
- Redder, Angelika(1992): Funktional-grammatischer Aufbau des Verb-Systems im Deutschen. In: Deutsche Syntax. Ansichten und

- Aussichten. Hrsg. von Ludger Hoffmann. Berlin · New York. S. 128-154.
- Schmidt-Tychsen, Barbara(1985): Funktionen des Modus bei der Redewiedergabe. In: Praxis Deutsch 71, S. 42-45.
- Schöne, Albrecht(1966): Zum Gebrauch des Konjunktivs bei Robert Musil. In: Deutsche Romane von Grimmelshausen bis Musil. Hrsg. von Jost Schillemeit. Frankfurt a. M. · Hamburg. S. 290-318.
- Sommerfeldt, Karl-Ernst(1972): Zur Parteilichkeit bei der Wiedergabe vermittelter Äußerung. In: Zeitschrift für Phonetik, Sprachwissenschaft und Kommunikationsforschung 25, S. 366-395.
- Sommerfeldt, Karl-Ernst(1988): Entwicklungstendenzen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Leipzig. S. 209ff.
- Starke, Günter(1980): Zur mittelbaren Wiedergabe von Rede- und Reflexionsinhalten im Deutschen. In: Zeitschrift für Phonetik, Sprachwissenschaft und Kommunikationsforschung 33, S. 664-676.
- Starke, Günter(1985): Zum Modusgebrauch bei der Redewiedergabe in der Presse. In: Sprachpflege 11, S. 163-165.
- Steube, Anita(1983): Indirekte Rede und Zeitverlauf. In: Untersuchungen zur Semantik. Hrsg. von Rudolf Ruzicka u. Wolfgang Motsch. (= studia grammatica XXII), S. 121-168.
- Steube, Anita(1986): Kontext und mögliche Welt: eine Untersuchung der indirekten Rede. In: Language and Discourse: Test and Protest. A Festschrift for Petr Sgall. Hrsg. von Jacob L. Mey. Amsterdam/Philadelphia.
- Thieroff, Rolf(1992): Das finite Verb' im Deutschen. Tempus - Modus - Distanz. Tübingen.
- Weigand, Edda(1992): Grammatik des Sprachgebrauchs.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20, S. 182-192.
- Weydt, Harald(2000): Der Konjunktiv - semantisch und übereinzelsprachlich betrachtet. In: Sprachspiel und Bedeutung. Festschrift für F. Hundsnurscher zum 65. Geburtstag. Hrsg. von S. Beckmann, P.-P. König u. G. Wolf. Tübingen, S. 227-240.
- Wichter, Sigurd(1978): Probleme des Modusbegriffs im Deutschen. Tübingen.
- Wolf, Norbert Richard(1995): würde. Zur Verwendung einer Hilfsverbform. In: Deutsch als Fremdsprache. An den Quellen eines Faches. Festschrift

für Gerhard Helbig zum 65. Geburtstag. Hrsg. von Heidrun Popp. München. S. 193-202.

Zifonun, Gisela/Hoffmann, Ludger/Strecker, Bruno(1997):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3. Bd. Berlin · New York. S. 1731ff.

## Zusammenfassung

### Konjunktivgebrauch in der indirekten Rede

Kim, Tae-Seong(Pusan National Univ.)

Die vorliegende Arbeit soll einen Beitrag zu Verständnis des Konjunktivs(=Konj.) leisten. Insbesondere geht es um die Verwendung des Konj. in der indirekten Rede.

Die Belegmaterialien zum Konjunktivgebrauch wurden politischen und wissenschaftlichen Zeitungsartikeln entnommen, im Wesentlichen der "Welt" und der "FAZ".

Obwohl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offenbar ein Wandel im Modusgebrauch im Allgemeinen vor sich geht, lässt sich sagen, dass in den Pressemeldungen der Konj. I durchgängig verwendet wird. Die Mouswahl für den Konj. I ist nicht nur ein Kennzeichen für mittelbare Redewiedergabe, sondern sie kann in bestimmten Fällen ein Sprechereinstellung ausdrücken, da der Konj. I in den dass-Komplementsätzen allgemeiner an Nichtfaktivität gebunden ist Für die sog. 'berichtete Rede' ist der Konj. I als Zitierzeichen obligatorisch.

Bei der morphologischen Betrachtung wurden die Charakteristika der morphologischen Formbildung im Konj. beschrieben. Im Konj. werden alle Formen mit "e" gebildet. Es wird angenommen, dass der Schwa-Laut des Konj. in der Regel vorhanden sei, es aber nicht ein Morphem sei.

Die Ersetzung des Konj. I durch den Konj. II in der indirekten Rede hat ihren Grund in der mangelnden Distinktivität zum Indikativ Präsens.

Im Konj. II wird der Umlaut als Konjunktivmarker der starken Verben angesehen.

Im Unterschied zu den starken Verben fallen Indikativ und Konj. im Präteritum der schwachen Verben, die keinen Vokalwechsel haben, formal zusammen. In diesem Fall wird der Konj. durch die würde-Konstruktion ersetzt.

Im Rahmen der syntaktischen Betrachtung wurden die Konkurrenzformen

vorgestellt. Die indirekte Rede kann durch vielerlei grammatische Mittel angezeigt werden. In diesen Fällen wird statt des Hauptsatzes eine grammatisch-lexikalische Paraphrase (mit Hilfe von Präpositionalgruppen mit nach, zufolge oder laut beispielsweise, und wie- Sätzen, darüber hinaus Modalverben sollen und wollen) verwendet.

Schliesslich wurde darauf hingewiesen, dass die würde-Paraphrase zwar eine Umschreibung des Konj. sein kann, dass einer solchen Fügung aber der Temporalitätscharakter nicht abgesprochen wird, insofern die Temporalität mit der Modalität zu tun hat

[검색어] Konjunktiv, indirekte Rede, Verbmodus

접속법, 간접화법, 동사의 서법

김태성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taeskim@pusan.ac.kr